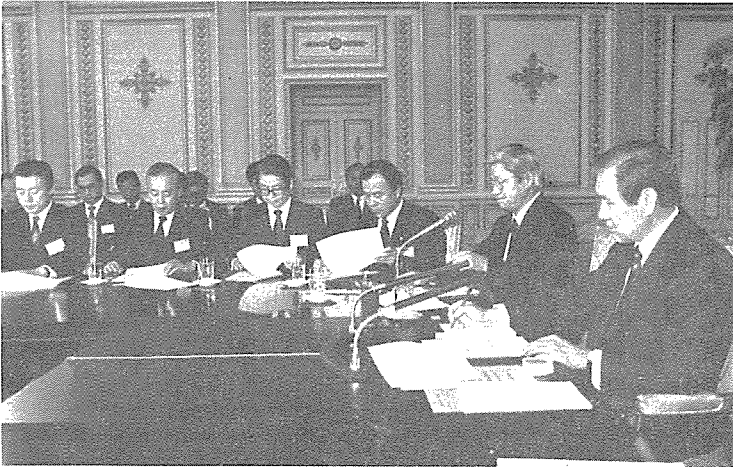


21세기대비 科學技術개발계획 樹立 추진

盧泰愚대통령, 科技處업무보고시 指示

原子力 安全대책에 만전기하도록



◇盧泰愚대통령이 1월 26일 李祥義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금년도 과기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대통령, 장관, 崔永煥차관, 全學濟과학기술원장, 朴泰源과총회장, 尹永勛기획관리실장)

盧泰愚대통령은 1월26일 상오 李祥義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우리나라는 10대교역국으로 성장한 만큼 앞으로 先·後進國으로부터 가혹한 견제와 도전을 받을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급인력 양성·첨단 기술개발·기초과학육성등에 주력, 90년대와 21세기를 대비하는 과학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또 『과기처에서 추진중인 국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치에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사들을 폭넓게 참여시켜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이어 연구소의 勞使문제에 대하여 언급.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연구기관에서 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것은 관련자 모두가 깊이 자성할 일』이라고 지적한 뒤 『연구기관에는 노사분규가 없도록 임직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또 최근에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돼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科技處는 원자력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科總을 과학기술단체總合體로 育成

科技處업무보고, 5개테크노벨트 造成

宇宙첨단기술올림픽 90년대에 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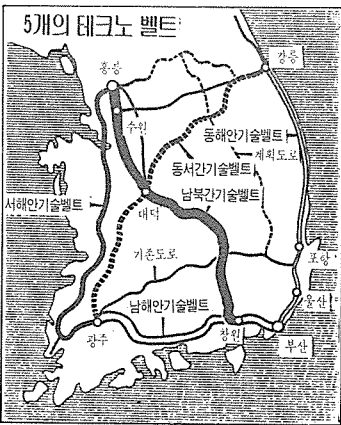
科學技術處는 전국도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첨단과학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全國土를 技術地帶網(Techno Belt)화 해 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계뉴스

또 90년대 중반에 宇宙尖端技術올림픽(Space Technolympic)을 개최하고 89년에는 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 관련기술개발의 구심체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李祥羲과학기술처장관은 1월26일 오전 청와대에서 盧泰愚대통령에게 올 主要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로 활용하면서 전국의 기술두뇌·산업·교육·문화를 교통망과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시켜 남해안·동해안·서해안·남북간·동서간 테크노벨트등 5개테크노벨트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계획안은 서해안(서울-홍릉연구단지-군산-광주첨단연구단지), 남해안(광주-창원-부산), 동해안(부산-울산-포항-강릉), 남북간(서울-수원-안성-대덕-구미-대구-부산), 동서간(광주-대덕-청주-강릉) 등5개구역으로 현도로망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

科技處는 2월중에 테크노벨

트 조성을 위한 관계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10월까지 기본구상을 확정지를 계획이다.

李장관은 또 우주기술에 관련된 각종 첨단기술을 신속히 획득하고 이를 국내 산업계에 파급, 활용할 목적으로 우주첨단기술올림픽을 개최하고 이를 위해 관련학회, 기업연구소, 출연연구기관등의 관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주산업전시회, 세계우주소년단대회등을 기술올림픽의 사전행사로 추진토록 하며 아시아권 협력사업으로 과학위성발사, 한국인조종사의 우주선탐승, 한국과학자의 우주기지개발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北方정책의 일환으로 중·소 동구권과 과학기술협력사업을 전개하고 북한과는 남북한 과학장관회의 개최를 포함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系조사, 과학기술용어사전 공동편찬, 남북학술회의 공동 개최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또 대통령자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범국가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5백만 과학기술인 단체의 총합 조직으로 육성하고 汎과학기술계의 여론수렴을 위한 구심체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特許法 전면 개정

3월 임시국회에 상정

政府는 工業所有權의 보호강화를 위해 特許法을 전면 개정하고 반도체침보호에 대한 特別法을 제정할 방침이다.

特許廳에 따르면 현재 마련 중인 특허법개정시안 내용을 특허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고 식물특허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음식물 또는 기호물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해 주며 기업비밀보호조항을 신설하는 것등이 주요골자로 되어있다.

특허청은 시안이 마련되는대로 공청회를 거쳐 3월까지의 최종 마무리지어 3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標準色 세분화

工振廳, 1천4백95종으로

工業振興廳은 컬러TV방송을 비롯 섬유, 잉크, 도료등 色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세분화되고 정확한 색도감을 필요로 함에 따라 지금보다 2배가 넘는 1천4백95종의 표준색과 그 배색처방을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표준색은 빨간색의 경우 종전의 83종이 1백70종으로 늘어났으며 흰색, 회색, 검정등 무채색은 8종으로 세분되었다.

새 표준색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색도감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國內外 과학기술자 學術회의 日程확정

4, 7, 10월 워크숍·심포지움등 세차례 開催

特定과제 연계한 尖端 과학기술 다뤄

韓國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89년도 國內外 한국과학기술자 학술회의 일정 및 분과별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國內外 한국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연구과제와 연계한 첨단과학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4월과 7월, 10월에 春季워크숍, 夏季심포지움, 秋季워크숍등 세차례에 걸쳐 열린다.

오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3개분과로 나뉘 실시되는 春季워크숍은 컴퓨터과학분과는 「Computer Vision」 「Neural Computer」 「병렬처리」 「Computer Graphics」등 4개 과제, 환경과학분과는 「산업폐기물처리」를 과제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夏季심포지움은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수학 및 통계학분과를 비롯 물리분과, 화학·화공분과, 금속공학분과, 생명과학분과등 모두 5개분과로 나뉘 「비선형해석학·실험계획법의 이론과 응용」 「방사광 및 중이온 가속기과학」 「전기전도성 폴리머과학·분자구조 및 분광학」 「내식재료·회유 금속 활용기술」 「세포막의 구

조와 기능·Bio-Reactor 이용 및 신물질창출」을 과제로 한 최신연구결과가 발표된다.

그리고 秋季워크숍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보통신분과, 기계분과, 생명과학분과, 약제분과, 재료과학분과등 5개

분과에서 「종합통신망」 「CAD / CAM·CIM」 「체외수정」 「신물질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신약개발」 「Engineering Ceramics」를 과제로 한 주제발표와 최신정보 교환이 있게 된다.

한편 춘계워크숍은 첫날인 19일 오전 11시 재외 연사 등록으로 시작, 12시부터 국내외 발표자, 좌장,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協議會를 과총회의실에서 개최하고 20~21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원 회의실에서 학술발표를 갖는다.

88년도 事業실적 및 결산 承認

科總 88년도 最終이사회서

정관 및 규정일부 개정(안)도 승인



韓國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1월27일 과총회의실에서 88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제 24회 정기총회를 오는 2월28일(화)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기로 했다.

朴泰源회장 주제로 열린 이날 이사회는 鄭助英상임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바로 의

안심의에 들어가 88년도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을 심의, 통과시키고 정관 및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별세한 朴炳哲이사과 李泰鉉감사의 결원에 따라 朴禮善이사(과총원로자문단부단장)와 趙誠虎감사(과총고문)에 대한 임원 보선이 있었다.

이밖에도 198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사용과 한국가스공사(대표 李熙晟·주요사업 가스제조판매)의 창조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勞組문제, 연구소 自體 해결토록

科技處, 근본적인 대처방안 강구키로

科學技術處는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勞組문제는 연구소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연구활동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는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1월27일 韓國과학기술원등 1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장회의를 열고 금년에 새로 결성된 全國민족민주운동연합회 활동에 편승하여 노조활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는 한편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연구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등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科技處는 이에 따라 연구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올 연구소 직원 급여체계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自治制 실시할 터

高在美科協회장 밝혀

在美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산하支部들의 유기적인 결속과 단합을 위하여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自治制度를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在美한국과기협 高光國회장



〈高光國회장〉

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지역별부회장제도를 신설하고 부회장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두어 지역별 특수성을 살리는 지부활동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전역의 큰도시와 캠퍼스마다 지부설립을 적극 장려하는등 지부 활성화를 꾀해 나가는 한편 2세과학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高회장은 또 현재 산재해 있는 미국내 韓國인 과학기술관련협회인 「뉴욕한인생물과학자회」 「재미전자현미경회」 「재미미생물학회」 「재미한인초전도연구협회」등을 일원화하여 전문분과위원회와 통합,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公)

(告)

科總 제89 - 1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定款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4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공고함.

- 日 時 : 1989년 2월 28일(火) 15 : 00
- 場 所 : 大韓商工會議所 국제회의실
- 案 件 : ① 1988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② 회원단체 연회비조정(안) 승인
 ③ 198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④ 정관일부 개정(안) 승인
 ⑤ 임원선출
 ⑥ 기 타

1989년 2월 일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 長 朴 泰 源

代議員 各位

航空宇宙研 등 5개연구소 設立

機械研, 96년까지 4,158억원 投入

韓國機械연구소(소장 金燾喆)는 기계·재료분야의 대형 연구개발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위해 산하에 독립법인형태로 항공우주연구소 등 5개연구소를 설립키로 했다. 동연구소가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오는 96년까지 모두 4천1백58억원을 투입, 기계기술연구소·재료연구소·항공우주연구소·생산기술연구소·선박해양연구소 등 5개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5백95억원을 들여 90년대 초 忠南 대덕연구단지안에 설립될 기계기술연구소는 고속철도차량 극한환경창출시스템 터보기기 미래형자동차 등 대형연구과제와 기계설계 핵심요소기술 등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항공기 및 우주기술분야의 국책연구과제와 단거리이착륙기 인공위성 등 대형과제를 중점 수행하게 될 항공우주기술연구소는 2천39억원을 투입, 忠南 대덕연구단지내에 설립되며 선박·해양연구소는 선박설계 및 생산전산시스템개발 등 대형과제와 선박·해양구조물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4백78억원을 들여 대덕선박분소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생산기술 및 자동화분야와 재료기술분야에서는 5백6억원

과 5백40억원을 각각 투입, 생산기술연구소와 재료 연구소를 昌原에 설립할 계획이다.

辛萬教 前과기처차관

科振 常勤副理事長에

韓國科學技術振興財團(이사장 金基衡)은 1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常勤副理事長에 前科技處次官인 辛萬教씨를 선임했다. 신임 辛萬教 상근부이사장(52세)은 금산출신으로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거쳐 1967년 과기처창설 이래 사무관, 정보산업국장, 국립과학관장, 기획관리실장, 차관 등 22년간 줄곧 과기처에 몸담아 왔다.

생명과학 發展戰略 제시

生命科學 정책 세미나서

生命科學 추진계획 수립위원회(위원장 趙完圭)와 韓國과학기술원 부설 遺傳공학센터는 2월3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생명과학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 농업, 자원, 공업, 사회환경 등 6개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2천년대 국민보건을 위한 생명과학 기술발전 전략(孟光鎬/가톨릭 의대교수)」 「깨끗한 환경, 공

해없는 사회 건설(鄭勇/연대 환경공해연구소장)」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제2의 녹색혁명(朴孝根/서울대농대교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중점기술개발전략(洪鍾俊/동력자원연구소실장)」 「생명산업의 생산성향상과 공업구조개편(張虎男/과학기술원교수)」 「생명과학의 사회적 책임(윤리)」 金鎔貞(동국대 철학과 교수) 등의 6개 주제발표와 관계전문가들 간의 토론이 있었다.

基礎科學 육성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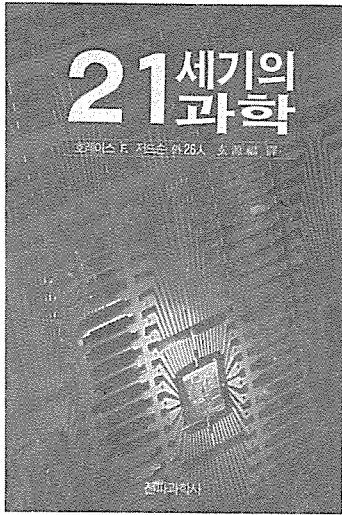
강연회 및 심포지움 開催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육성사업 10주년 기념강연회 및 학술심포지움이 2월 16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 볼룸에서 개최된다.

전국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李祥羲 과학기술처장관이 「기초과학과 국가발전」 일본문무성 A. Shimotori씨가 「일본의 기초과학 육성정책」 미 코넬대학의 T. H. Joh씨가 「미국대학에서의 기초과학: 과거, 현재, 미래」 고려대 金始中부총장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의 육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학술심포지움에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5개 기초과학분야의 육성방안에 관한 관계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게 된다.

新 刊 安 내

21 세기의 과학



우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바로 10년남짓 앞두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과학의 모습은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서 미리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앞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포함하여 27명의 저자들이 연구실의 문턱을 이미 넘어 선 새로운 발전과 추세, 이런 발전과 추세가 여러분야에 미칠 문제점 그리고 오늘 내일로 임박한 중요한 과학발견등을 모두 망라하여 전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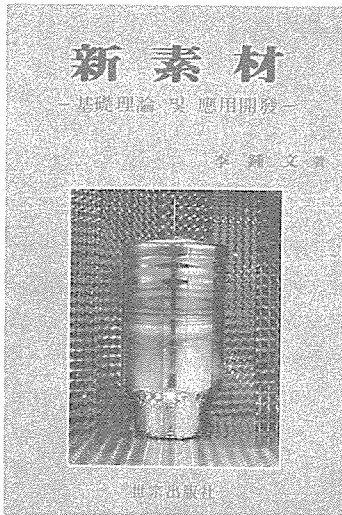
예컨대 전자공학분야에서 반도체 칩의 계산능력이 10배가 빨라진다면 컴퓨터, 전화, 비디오 스크린등 정보장비의 힘은 얼마나 신장할 것인가? 유전공

학은 의약과 농업분야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3차원이 아니라 9차원이라는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10여년간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지난 10여년간의 10배나 빨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25쪽지의 글을 통해 여러 독자들의 구미와 상상의 나래를 촉촉히 적서 줄 것이다. <호레이스 저드슨 외 26명 지음·玄源福 옮김·국판·190쪽·전파과학사 펴냄>

新 素 材



전세계는 신소재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신소재, 신재료, 신물질이라는 용어가 전혀 낯설지 않게 되고 형상기억합금, 아모르퍼스금속, 초전도재료, 수소저장합금, 파인 세라믹스등을 이용한 새로운 문명의利器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물질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의 신소재에거는 人間の 꿈은 거대한 것이며 이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소재분야의 연구개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신소재의 기초이론 및 응용개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책은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素材관련학과에서 「신소재개론」 또는 「신소재공학」 강좌의 교과서로 사용되거나 소재관련 생산현장의 실무자와 경영자, 그리고 신소재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진 일반인의 참고서나 교양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은 현직 대학교수인 필자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서 발간하는 「機械工業」誌에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3년여에 걸쳐 게재된 신소재시리즈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李鍾文지음·국배판·276쪽·世宗出版社 펴냄>

과학기술계뉴스



대한전기학회

大韓電氣學會(회장 朴永文)는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89IFAC 전력계통 및 발전소 제어 國際심포지움 개최를 앞두고 발표연제 및 발표자 선정 등 회의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미국, 일본등 우리나라와 정식 國交를 맺고있는 국가외에도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 동독, 폴란드등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 중국 다음으로 세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심포지움은 초청강연과 논문발표외에도 자동금전시스템에 관한 패널디스커션, 간담회, 전시회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 세계 42개국에서 접수된 354편의 논문가운데 170여편을 선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FAC는 자동제어 이론과 응용기술발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1959년 9월 설립된 UN, UNESCO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갖춘 자동제어 국제연합회로 44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

아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동학회는 IFAC 심포지움외에도 5월26일~28일 3일간 웨라톤 워커힐호텔에서 韓·日공동으로 국제전력전자심포지움을 개최하고 11월에는 미국과 학재단과 공동주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동학회는 이밖에도 7월에 대한전자공학회와 함께 '89전기전자공학학술대회를, 11월에는 추계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회산하 11개 전문분야연구별 학술발표회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켜 나갈 방침이다.

대한건축학회

大韓建築學會(회장 朴胤成)는 2월10일 건설회관 3층에서 建築CAD 교육과 이용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학회 CAD위원회가 주최하고 건설공제조합 후원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건축과 CAD교육」 「건축분야별 CAD이용과 교육」 「건축실무에서의 CAD이용」등 3개파트로 나눠 CAD교육의 필요성, 건축일반계획, 설계사무소에서의 CAD이용등 건축 각분야별 교육 및 실무에서의 CAD이용방안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동학회는 이에앞서 2월3일에는 日本 大阪大 笹田剛史교수를 초청, 「건축디자인과 도시

계획에 있어서 CG/CAD」에 관한 학술강연회를 가졌다.

한국섬유공학회

韓國纖維工學會(회장 宋石圭)는 2월13일부터 15일까지 반도유스호스텔에서 제4차 국제섬유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각종 세미나, 학술발표회등을 통해 학술활동을 진작시켜 나가기로 했다.

먼저 창립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제4차 국제섬유학술회의에는 일본을 위시하여 중국, 인도, 홍콩, 대만등 6개국에서 40여명의 섬유공학자가 참석,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첨단과학기술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아시아섬유학술회의 설치에 관한 회의가 열려 아시아섬유공학자들의 공통과제인 세계 섬유공업의 아시아화를 위한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동학회는 또 오는 5월23~26일 「니트의 하이테크」를 주제로 한 섬유공학 교육강좌를, 8월3~5일에는 「산업용 신소재 섬유」를 주제로 하계세미나를, 10월21일에는 「직포공업의 신기술」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학회는 이밖에도 섬유사전의 보정판을 연내로 발간하는 한편 신용어의 발굴 및 제정사업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계뉴스

科總회원단체 '89國際 學술행사 계획일정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제4차 국제섬유학술발표회	2.13~15	반도유스호스텔	한국섬유공학회	송석규
폐기물의 자원화 국제기술 심포지움	4. 9~11	프라자호텔	한국폐기물학회	이승무
제14차 아세아태평양 치과 회의 및 제39회 종합학술대회	4.26~30	한국종합무역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종수
창립20주년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5. 2~ 3	한국제약회관	한국생약학회	이인란
국제유가공심포지움	5.26	서울우유 제3공장	한국낙농학회	이재영
IUPAC 국제고분자심포지움	6.26~28	서울롯데호텔	한국고분자학회	안태완
문화보존과 도시개발세미나	7.25	건설회관	대한국토계획학회	주종원
제5차 아세아·오세아니아 생화학회 학술대회	8.13~18	서울힐튼호텔	한국생화학회	한문희
동굴의 환경보전세미나	8.14~18	건국대학교	한국동굴학회	홍시환
제14차 국제영양학회심포지움	8.20~25	인터컨티넨탈호텔	한국영양학회	김숙희
생물공학계속교육	8.13~18	서울대학교	한국생물공학회	목영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 총회	8.21~26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한국잡초학회	이동우
IFAC "전력계통 및 발전소 제어" 국제심포지움	8.22~25	"	대한전기학회	박영문
의약품 개발과 신소재심포지움	8.24~25	한국제약회관	한국약제학회	지용길
동북아시아간 통신협력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	9.18~19	라마다르네상스호텔	한국통신학회	강창연
제3회 아시아표면처리 Forum	9.25~27	한국종합무역센터	한국금속표면공학회	이주성
'89VLSI 및 CAD 국제학술회의	10.17~19	미 정	대한전자공학회	이충용
농업교육학회 창립2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움	10.20~21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교육학회	이무근
국제식물병리심포지움	10.27	서울대학교	한국식물병리학회	김기청
화학적발암물질의 발암기작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12. 2~3	서울팔레스호텔	한국환경성독물연변이 발암원학회	김낙두
새로운 산업미생물의 탐색과 신물질창출심포지움	10.27~28	연세대학교	한국산업미생물학회	유주현

대한수학회

大韓數學會(회장 尹在漢)는
2월2일 韓國수학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제2기 수료식을 과학
기술대학 시청각실에서 가졌다.

이 수학 겨울학교는 오는 7
월 서독에서 개최예정인 國際
수학올림피아드에 파견할 선수

단을 구성하기 위한 예비학교
로서 전국에서 선발된 고등학
생 40명에게 1월15일부터 19일
간 집중적인 수학교육을 실시
했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전자공학회

大韓電子工學會(회장 李忠雄)는 금년에 40여차례에 걸쳐 학술논문발표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2월11일 한국물리학회 및 한국전기학회와 공동주최로 제4회 파동 및 레이저학술발표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CAD연구회, 마이크로파 및 전자전파연구회 등 전문연구회별 연구발표회와 산하지부별 학술발표회를 실시한다.

또 10월21~22일 서울에서 대한기계학회등 4개관련학회와 공동주최로 '89한국자동제어

학술대회를 갖고 6월초에는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밖에도 VLSI 및 CAD 국제학술대회를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日本전자정보통신학회와 공동주최로 韓·日 합동학술발표회를 6월25일~27일 일본 후카이도大에서, 韓·日합동 전자교환학술발표대회는 오사카(일정미정)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국물리학회

韓國物理學會(회장 高允錫)는 올해에 物理學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각지부 및 분과별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시키나가기로 했다.

학회 산하 입자물리학분과를

비롯 원자핵물리학, 고체물리학, 응용물리학, 열 및 통계물리학, 물리교육, 플라즈마, 광학 및 양자전자학분과등 8개 전문분과별로 각종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특히 원자핵물리학분과는 日本理化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열 및 통계물리학분과에서는 통계물리 워크숍을, 물리교육분과에서는 물리교육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함께 外國의 저명물리학자를 초청하여 최신정보교류를 꾀하는 한편 외국 물리학회와의 국제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에 개최예정인 제4차 아시아·태평양 물리학술회의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작정이다.

科總 회원단체 2월중 學術행사 계획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자	장소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89동계 워크숍	2. 2~ 4	부산해운대글로리아 콘도
한국임학회	박명규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	2. 10	국민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총회 및 T.T.T	2. 10~11	유성무궁화관광호텔
한국원예학회	김병문	총회 및 학술발표회	2. 11	경희대학교
한국수문학회	강관원	"	"	한신오피스텔 회의실
한국조경학회	안봉원	"	2. 13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정보과학회	이철희	동계데이터베이스학술세미나	2. 17	중앙대학교
한국농화학회	윤형식	총회 및 학술발표회	2. 22	고려대학교
한국농업교육학회	이무근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농어촌 청소년교육세미나	2. 24	농협중앙회
한국목재공학회	이원용	총회 및 학술연구발표회	"	임업연구원
대한보건협회	김명호	보사통계개선 발전을 위한 워크숍	2월말	유성관광호텔
한국작물학회	박래경	학술발표회	2월말	서울대학교

대한조선학회

大韓造船學會(회장 金辰安)는 우리나라가 세계造船 1위국으로써 부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국제교류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동학회는 특히 금년에 외국의 저명造船學者를 초청, 학술강연회등을 가짐으로써 선진외국의 첨단기술의 국내 도입을 꾀해 나갈 계획인데 특히 4월말경에는 네덜란드 Marin 연구소의 Oosterfeld Muntijwert 소장을 초청, 네덜란드 Marin 연구소의 최신실험기법에 관한 특별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동학회는 또 7월6~8일 大韓熔接學會(회장 嚴東錫)와 공동 개최예정인 하계강습회에 日本芝浦공업대 飯田玉光교수를 초청하여 선체구조 피로파괴에 관한 특별강연회도 아울러 가질 계획이다.

동학회는 이와함께 학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연구회인 선박구조연구회, 선박유체역학연구회, 수조시험연구회, 해양공학연구회를 통한 전문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오는 92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선박유체세미나의 준비작업에도 박차를 가해나갈 예정이다.

대한토목학회

大韓土木學會(회장 丁明植)

는 금년에도 목적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會務운영의 內室化에 주력, 會勢확장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土木人들의 요람이 될 토목회관 건립사업에 착수, 금년안에 부지매입과 건축공사에 들어가 2~3년내 완공을 목표로 회관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동학회는 이 회관이 완공되면 가능한한 토목관련학회를 입주토록함으로써 토목관련 학술 연구는 물론 관련 제반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동학회는 이와함께 환경·도로·수공·항만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미국토목학회와 공동

으로 내년도에 서울에서 개최기로 함에 따라 발표논문 접수 및 발표자선정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금년에는 91년경 발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토목공학용어사전 편찬을 위한 용어해설작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련학회와 협력하여用語統一化 작업도 아울러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학회지(年6회刊)와 논문집(年4회刊)을 발간, 회원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 및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 시방서등 각종 시방서와 토목공학핸드북등 토목관련 기술서적의 발간 보급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韓人 물리학자 國際학술회의 開催

내년 여름, 中國 延邊대학교서

在美 韓人 물리학자협회는 中國 延邊대학교와 공동주최로 現代물리학 국제학술회의를 中國 吉林省 연변대학교에서 오는 90년 여름(7~8월경) 2~3주에 걸쳐 개최할 계획이다.

전세계 韓國물리학자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유대강화와 海外유일의 韓人대학인 연변대학을 해외학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직·간접으로 공동연구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 학술회의에는 在美한국 물리학자 30여명을 비롯, 구주·일본지역 동포학자 10명, 국내

학자 20명, 미·불·북한물리학자 20명과 중국내 한인물리학자 다수등 1백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고에너지물리학분야를 위시하여 고체응집물리학, 우주천체물리학, 원자 및 핵물리학등 현대물리학의 전 분야가 다루어지게 된다.

한편 이 학술회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美 브라운대의 강경식박사(전화 (401)863-1468)에게 문의하면 된다.